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계는 해야

2025년 5월 16일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 이로써 미국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두번째로 높은 등급의 같은 수준으로 미국 신용을 평가하게 되는 셈. 일각에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23년 11월에 미리 예견되어 있었고,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사례와 달리 이미 다른 기관에서 먼저 내렸기 때문에 주식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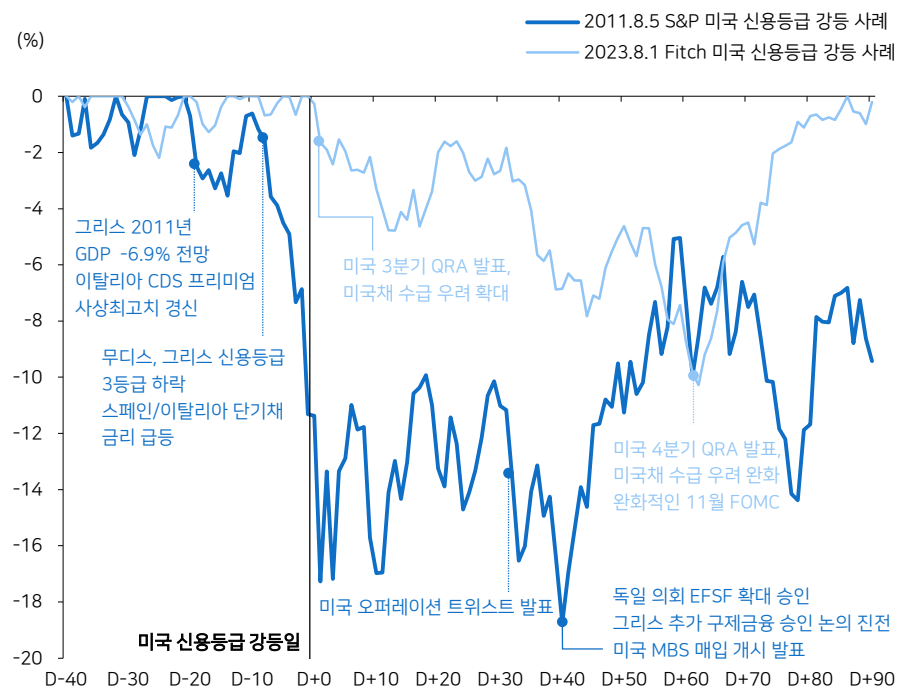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시각.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2011년 사례, 2023년 사례 모두 결국에는 S&P500 지수 기준 10~20% 고점대비 조정이 나왔던 경험 있음

과거 주가 하락은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미국 누적된 채무 우려라는 단일 문제라기보다는 배경에 있던 다른 이슈들을 고려할 필요. 2011년 하락은 유럽 금융위기 때문에 먼저 하락하기 시작. 그 과정에서 미국 신용 우려까지 전이되어 주가 낙폭 확대. 2023년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 QRA에서 미국 채 수급 우려가 구체화, 장기물 금리가 5%를 터치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조정

두 번의 사례에서 시장이 반등했던 계기는 배경에 있던 문제의 봉합이었음. 2011년 사례에서는 독일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대출한도 확대 승인, 그리스 구제금융 논의 진전 등이 변곡점에서 있었고, 2023년에는 4분기 QRA 발표에서 미국 채 수급 우려 해소, 완화적인 11월 FOMC가 있었음

4월 저점 이후 5월까지 미국은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주도산업에 대한 낙관을 빌미로 반등. 시장 관심이 산업에서 매크로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을 경계(ex. 미국 재정 우려 재점화, 미국 10년 4.5% 추세 상회 등). 실적시즌이 마무리되고 시장 관심이 산업에서 다시 매크로로 이동하게 되어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1차적으로는 6월 FOMC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음

그림1 2011년, 2023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전후 S&P500 MDD와 주가 변곡점 트리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